

“유전자 치료 핵심 잡아라”... RNA 플랫폼 경쟁 본격화

(리보핵산)

美 ‘TIDES USA’서 연구결과 공유
올릭스, 질환 맞춤형 플랫폼 구축
알지노믹스, ‘RZ-001’ 임상 진행
에스티팜, 핵심원료 생산 역량 확대

국내의 RNA 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특정 질환에 국한됐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희귀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 구축해 경쟁력을 높인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릭스는 질환 맞춤형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우선 오는 1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막을 올리는 글로벌 RNA 치료제 포럼 ‘TIDES USA 2026’에서 차세대 안과용 플랫폼 기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올릭스는 간섭RNA(RNAi) 치료제에 쓰이는 플랫폼을 독자 구축해 왔다. 체내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단백질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접근하는 원

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OLX301A’의 경우, 황반변성 치료제 파이프라인이다. 망막 색소 상피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지난해 11월 미국 임상1상을 완료해 현재 임상2a상 추진을 앞뒀다. 또 자체 개발한 안과용 RNAi 플랫폼 및 이중 표적 플랫폼은 망막 및 망막색소상피에서 유전자 조절 물질의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릭스는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도 임상 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OLX104C’,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OLX702A’ 등은 현재 호주에서 각각 임상 1b/2a상, 임상1상에 진입해 있다. 다만 아직 임상 초기 단계로 향후 개발 전략 및 상업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효소 기반 유전자 편집 및 교정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자 결함 부위를 직접 자르고 갈아 끼우는

기술은 암부터 알츠하이머, 희귀 질환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알지노믹스는 해당 기술을 응용한 고모세포종 신약 후보물질 ‘RZ-001’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물질은 암세포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텔로머라아제를 만드는 mRNA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절단한다. 동시에 치료용 RNA를 작동시켜 암세포 사멸까지 유도한다. 텔로머라아제는 암세포가 텔로미어를 계속 복구하며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효소다. 즉 암세포의 무한 증식을 억제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

알지노믹스는 이러한 RNA 편집 플랫폼의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RZ-001’에 대해 첨단재생의학치료제(RMAT) 지정을 획득한 것이다.

알지노믹스 측은 “이번 RMAT 지정을 계기로 후속 임상 설계, 생산 및 품질 관리(CMC) 등을 미국 FDA와 적극 논의하며 글로벌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전자 치료제 핵심 원료인 올리고 핵산을 공급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에스티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에스티팜은 핵심 원료 생산 역량은 물론, mRNA 약물 전달 기술 ‘STLNP’, 유전자 염기서열 말단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스마트캡’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사 수요가 급증하는 데 적극 대응해 생산 설비도 확충하고 있다. 단순 제조사를 넘어 유전자 치료제 산업의 핵심파트너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에스티팜의 올리고 원료의약품 수주 누적 규모는 약 34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80%는 상업화 프로젝트 수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차세대 부문에서 독자 기술을 입증하는 시점과 기술수출 등의 성과가 맞물릴 때 K바이오 가치가 재평가되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간섭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실현한다.

/올릭스

셀트리온 ‘짐펜트라’, 1분기 역대 최대 처방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
90% 이상 환급 커버리지 확보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 (렘시마SC 미국 제품명)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 분기 처방량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로 접어들었다.

1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짐펜트라는 전년 동기 대비 185%(3배) 대폭 증가한 역대 최대 분기 처방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뿐 아니라 상반기 합산 처방량도 뛰어넘는 수치다. 셀트리온은 미국 법원에서 추진해 온 맞춤형 영업 전략이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2024년 짐펜트



셀트리온 짐펜트라

라 출시 이후 의사(provider)·보험사(payer)·환자(patient) 등 현지 의료 시장 전반에서 영향력이 큰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집중 공략하는 ‘3P’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짐펜트라 출시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과 경영진들은 미국 전역의 권역별, 질병별 주요 의사들과 직접 만

나 제품 알리기에 집중했다. 또한 출시 초기부터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및 보험사, 중소형 업체 등과 소통하며 보험 시장의 90%가 넘는 환급 커버리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디어 광고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90% 이상 환급 커버리지 확보에 기반한 견조한 처방 인프라 구축 ▲ 판매 2년 차 제품에 대한 의료진 및 환자 인지도 향상 ▲ 출시 이후 매분기 최대 처방량 갱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월 1회 비만치료제 개발 본격화

편의성 극대화한 ‘장기저속형 주사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제형 혁신 경쟁에 대웅제약이 가세했다. 기존 주 1회 투여하던 비만 치료제를 월 1회로 줄여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장기저속형 주사제’ 개발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지난 8일 바이오 스타트업 티온랩테라퓨틱스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비만 치료용 월 1회 주사제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의 ‘큐어’는 균일한 크기의 미세 약물 입자(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입자의 균질성을 구현하는 공정을 갖춰 약물을 체내에서 균일하게 지속 방출하는 데 쓰인다.

티온랩테라퓨틱스의 ‘뉴젝트 스피어’는 초기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한다. 특수 조성물을 배합해 미립자를 코팅함으로써 주사 초기 약물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방출되는 현상을 억제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연구·영업 통합해 글로벌 공략

4대 통합 부문 체제로 조직 대개편
포폴위 신설하고 전문경영 체제로

취임 한 달 차를 맞은 황상연 한미약품 대표가 ‘2030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핵심은 부서 간 협업을 극대화해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로 움직이는 유기적 윈팀 출범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 혁신성장 ▲ 미래성장 ▲ 지속성장 ▲ 성장지원 등 4개 통합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부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뉴 한미’ 전문경영 체제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부문은 비만 치료제 등 전략 품목의 시장 안착에 중점을 둔다. 신제품 개발, 마케팅, 해외영업 등을 한 데

묶는다. 또 평택제조센터, 의약혁신센터까지 더해 연구 결과가 시장 출시와 매출로 직결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개발과 영업이라는 기능을 통합해 3~5년 후의 글로벌 시장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대응한다.

미래성장 부문은 기존 R&D센터의 산실이다. 비만대사센터, 항암센터, 융합센터 등으로 세분화해 기초 체력을 구축한다. 혁신적인 초기 파이프라인을 발굴해 제약 기업 본연의 가치를 지속 창출한다.

지속성장 부문은 국내 영업을 총괄한다. 기존 영업 본부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 심순환계, 비뇨기과 등 한미약품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질환군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치료 영역으로 영업 활동을 확대한다.

성장지원 부문은 팔탄제조센터, 사업관리센터 등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 개선, 규제 대응 등으로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임상 품질보증 및 안전성 관리(QA/PV)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과 함께 가동되는 ‘포트폴리오 위원회’는 전문경영 체제의 컨트롤 타워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임상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등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상연 대표는 “중국 손자병법 구지편에 나오는 상산의 뱀 ‘술연’처럼 어떤 변화에도 기민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서로를 지탱하며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며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이 되도록 함께 거듭나자”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현대L&C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현대L&C ‘스튜디오H’, 녹색매장 지정

기후부 선정... 친환경적으로 운영

현대L&C는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 관련 인증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GR) 인증, 저

탄소 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이다.

스튜디오H는 벽지·바닥재·인테리어 필름 등 약 70종의 녹색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제품별 자재와 구조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인정받아 녹색매장으로 선정됐다.

특히 현대L&C의 ‘재활용 PET 가구용 데커레이션 시트’는 국내 재활용 가구용 필름 부문 최초로 우수재활용 인증을 획득했다. /김서현 기자 seoh@